



미 증시, 고용 부진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5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델타변이 환자 급증 우려에도, 주간 실업지표 개선에 따른 고용 위축 불안 완화, 양호한 2 분기 실적 시즌 진행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킴에 따라 상승 마감. (다우 +0.8%, S&P500 +0.6%, 나스닥 +0.8%). 업종별로는 헬스케어(-0.4%), 소재(-0.1%)를 제외한 에너지(+1.3%), 금융(+1.2%), 유틸리티(+1.1%), 커뮤니케이션(+0.9%) 등 전업종이 강세.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0~20 만명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현재 8.4 만명, 2 일 기준). 이와 동시에 여전히 9,300 만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백신 접종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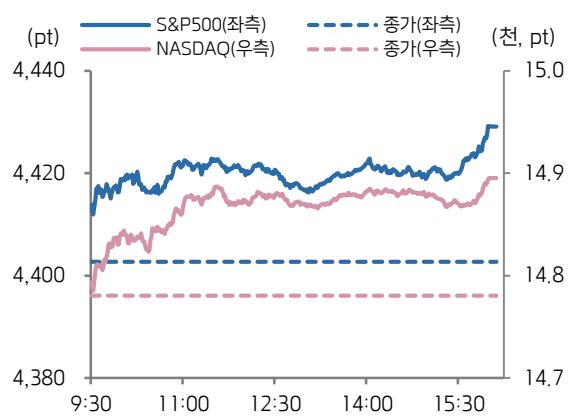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8.5만건으로 전주(39.9만건)에 비해 감소했으며, 예상치(38.5만건)에 부합.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93만건으로 지난해 3월 판데믹 이후 처음으로 300만건을 하회.

미국 증시 평가

지난 4 일(수) ADP 민간 고용 쇼크 이후 미국 고용시장이 델타 변이 확산 충격 등으로 회복세가 크게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업수당청구건수 지표 호조로 이 같은 불안이 완화된 모습. 또한 7 월 말 발표된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고용 환경에 설문 가중치를 많이 두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구인난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미국인들의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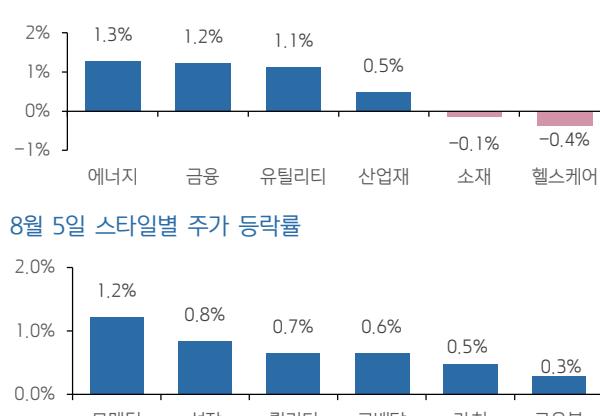
이처럼 고용 부진과 경기 피크아웃 우려는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더나(-0.7%)의 주가 부진이 시사하는 것처럼, 여전히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2 분기 실적 시즌이 후반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피크아웃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차주까지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S&P500&NASDAQ 일중 차트(8월 5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3.5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카카오뱅크 상장 및 관련 벤류체인주 주가 변화
2. 1,150 원대에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국면 진입 가능성
3. 외국인들의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순매수 확대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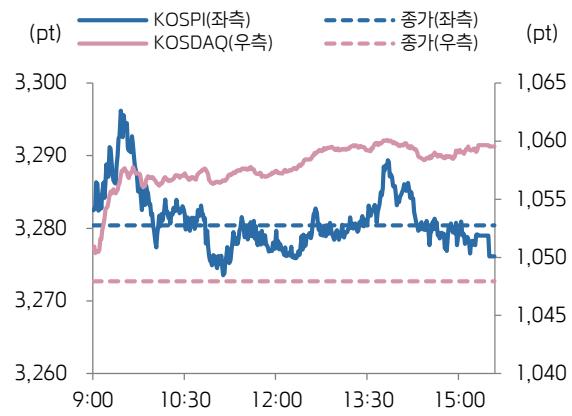
5일(목) 코스피는 미국 민간 고용 부진, 연준 부의장의 조기 긴축 발언 등 미국발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최근 주가 상승세가 좋았던 반도체, 컨택트 주 위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됨에 따라 약보합 마감. 반면 코스닥은 실적 개선 및 정부 정책 기대감에서 기인한 2 차전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1%대 강세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1.1%). 코스피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6%), 의료정밀(+1.4%), 섬유의복(+1.3%) 등이 강세, 운수장비(-1.0%), 은행(-0.9%), 철강금속(-0.5%) 등이 약세. 코스피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9 억원, 1,860 억원 순매수, 개인이 2,513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선진국들의 경제 정상화 기대감 회복,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선호심리 현상 지속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원/달러 환율도 1,150 원대에서 1,140 원대로 내려왔다는 점은 외국인 수급 여건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장 개시전 발표되는 미국의 7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률 둘러싼 관망심리가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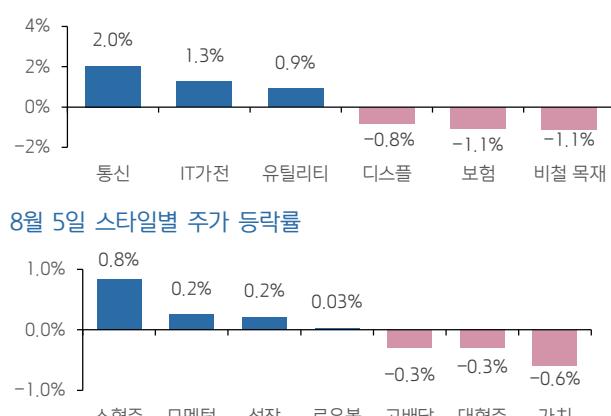
금일은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상정 전부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벤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흥행 여부도 관심 가질 만한 이벤트. 또한 전일 바이든 정부에서 2030 년까지 완성차 업체들에게 전기차 판매비중을 50%로 늘리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임을 감안 시, (전거래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국내 전기차 벤류체인 업체들의 주가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5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